

조선반 학습 계획 5월 11일

교재 : 한국어 6-1

교육 목표: 학습 활동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네 영역을 골고루 사용하여 한국어 의사 소통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교시	수업 내용	교재 및 자료
1교시 9:30~10:00	자신이 속한 동아리 소개하기 읽고 쓰기 질문에 답하고 풀기	국어교재 6-1
2교시 10:00~11:00	문법 -고자- 하게 되다 받아쓰기시험	동영상 사진
점심		
3교시 11:20~12:00	프로젝트 준비와 교지에 실을 글을 완성하도록 한다	문화 역사 자료
4교시 12:00~12:40	서예	
숙제	일기 또는 독후감 1장 새로 나온 단어 5 번 써오기 나누어준 프린트물 받아쓰기 틀린 것 5번 써오기	

알림 :조선반에서는 매주 새로배운 단어써오기에서 받아쓰기를 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결석을 할 경우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 강 승 연

Shuen98@hotmail.com

새로 나온 어휘 또는 받아쓰기

초청 연수

참가신청서
우편 제출
재외동포 청소년
현장 탐방
봉사 활동 경험자
계획과 포부
출연료
재능 기부 일환
체험하는 뜻 깊은 자리
현지의 재외공관
일기나 독후감

문법 연습

-고자 - 게 되다

제 꿈을 펼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1) 오랫동안 꿈꿔 온 외교관의 _____

_____ (꿈을 펼치다, 지원하다)

2) 여름방학에 유럽에 _____ 지난 겨울에

_____ (여행하다 , 아르바이트를 하다)

3) 이 프로그램을 _____ 고국으로

_____ (참가하다, 돌아오다)

-겠습니다

예문)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

1)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_____

(끊임없이 노력하다)

2) 제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_____ (최선을 다해 돕다)

1. 동학은 어떤 종교였나요?

2. 사람들이 창수를 '애기 접주' 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창수가 아기 아빠라서
- ② 창수가 키가 제일 작아서
- ③ 창수가 아이들을 몹시 좋아해서
- ④ 창수가 아이들만 지도하는 접주라서
- ⑤ 창수의 나이가 다른 접주들보다 어려서

3. ㉠과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은 무엇인가요?

- ① 쓰러진 나무를 일으켰습니다.
- ②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켰습니다.
- ③ 그 장군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 ④ 나는 넘어진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 ⑤ 방바닥을 짚은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4. 창수는 비록 어렸지만 어떤 점에서 뛰어났나요?

백범 김구

전기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백범 김구 ⑥

창수는 험한 구월산으로 동학군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의 세력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수도 일본군에 쫓겨 만주로 피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신했다가 다시 일 년만에 귀국해야 했습니다. 일본군들에게 명성황후가 시해 당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나 임금을 죽임

“㉠나라의 어머니를 시해한 ㉡원수를 내 손으로 기필코 죽일 것이다.”

창수는 일본군 중위 쓰치다를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용실의 죄수들은 창수를 무척 존경했습니다. 비록 죄수들이었지만 일본인에 대한 증오는 다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용실의 사람들은 창수를 탈옥시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치밀한 준비 끝에 탈출에 성공한 창수는 삼천리 방방곡곡을 떠도는 방랑객이 되었습니다.

어디라고 정한 바가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



1. 동학군의 세력은 왜 약해졌나요?

--	--	--

이 체포되면서

2. 창수가 관주에서 일 년만에 귀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과 ㉡은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 찾아 써 보세요.

(1) ㉠ :

--	--	--	--

(2) ㉡ : 일본군 중위

--	--	--

4. 다음 중 나머지 넷과 의미가 다른 문장은 무엇인가요?

- ① 청년은 일본인을 살해했다.
- ② 일본인이 청년들을 납치했다.
- ③ 조선의 한 청년이 살인되었다.
- ④ 청년은 일본인들에게 피살되었다.
- ⑤ 일본인들이 나라의 국모를 시해했다.

5. ㉢과 같이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백범 김구

전기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백범 김구 7

창수는 머리를 깎고 계룡산 절로 들어가 중이 되었는데, 절에서는 창수라는 본명을 사용하면 탈옥한 사실이 발각되어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창수라는 이름을 아홉 ‘구’로 고쳤고 호를 낮은 사람이란 뜻의 ‘백범’이라 지었습니다.

1919년 3월, 김구는 큰 뜻을 품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있었는데 임시 정부는 당시 독립 운동의 ㉠심장부였습니다.

김구는 안창호 내무총장을 찾아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곳에서 일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임시 정부의 문지기라도 좋으니 시켜만 주십시오.”

안창호 선생은 김구를 위 아래로 훑어보고는 말했습니다.

“원, 사람도. 자네같이 대장부의 풍모를 지닌 사람이 문지기를 해서야 되겠나. 우리 한번 조국을 위해 힘껏 일해 보세나!”

이렇게 해서 김구는 임시 정부의 요원이 되었습니다.

1. 김구가 이름을 창수에서 '구'로 고친 때와 까닭을 써 보세요.

(1) 때 : _____

(2) 까닭 : _____

2. ㉠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① 가장 무더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 ②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 ③ 심장 수술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 ④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 ⑤ 주위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3. 김구는 상하이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	--	--

선생

4. 백범이 안창호 선생을 찾아가 무엇이라도 좋으니 일하게 해 달라고 했나요?



백범 김구

전기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백범 김구 ⑧

김구의 결단력과 충명함은 그곳에서도 빛을 발하였습니다. 1926년 11월 김구는 국무령으로 뽑혔습니다. 국무령은 임시 정부의 최고 수령입니다.

김구는 우리 민족에게 저력이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겉에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간직하고 있는 끈기 있는 힘

어느 늦은 밤, 애국단에 한 젊은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봉창 ㉠ 의사였습니다.

“앞게나. 자네의 임무는 이미 알고 있겠지?”

백범은 따뜻하면서도 힘있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고맙네.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왜놈들도 더 이상 우리를 ㉡ 알보지 못할 걸세.”

이렇게 하여 이봉창은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는 뜻을 품고 도쿄로 떠났습니다.

몰래 사람을 죽임



1. 김구는 1926년 11월에 어떤 직책을 맡게 되었나요?

--	--	--

2. 김구가 '한인 애국단' 을 조직한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3. ㉠과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은 무엇인가요?

- ① 나는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 ② 이 분은 나의 병을 고쳐 주신 의사 선생님입니다.
- ③ 동생이 병이 나자 의사 선생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 ④ 나는 동물의 생명을 지켜 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 ⑤ 윤봉길 의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 '의사'는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사람(의인)이란 뜻입니다.

4. 이봉창의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5. ㉡과 뜻이 비슷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깔보다.
- ② 무시하다.
- ③ 존경하다.
- ④ 함부로 대하다.
- ⑤ 만만하게 보다.

백범 김구

전기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백범 김구 9

이봉창은 사쿠라다 문 앞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지만 불행히 암살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32년 이봉창 의사는 안타깝게도 일본 감옥의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날, 김구는 한인 애국단 단원들과 단식을 하며 그의 장렬한 죽음을 추모하였습니다.

사형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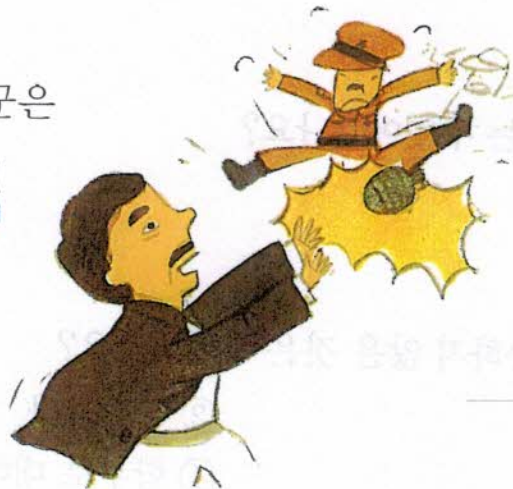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음, 또는 먹지 않는 일

죽은 사람을 기념함

그 후 4월 29일, 홍커우 공원에는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봉길이라는 젊은이가 폭탄을 높이 들어 축하장의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김구의 지시에 의한 이 사건은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성공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김구가 이끄는 독립군은 계림라전에 능했습니다. 한번 작은 부대로 여러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적군을 소란하게 하는 부대는 중국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1.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진 곳은 어디인가요?

--	--	--	--	--	--

2. ㉠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써 보세요.

3. ㉡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① 재미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 ②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 ③ 축하장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 ④ 대한민국을 앞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 ⑤ 일본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4. 김구가 이끄는 독립군은 어떤 전술에 능했나요?

--	--	--	--

5. 다음 낱말의 뜻을 써 보세요.

(1) 게릴라 :

(2) 주둔 :

백범 김구

전기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백범 김구 ⑩

이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일본 군대는 김구를 체포하기 위해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중국 각지를 옮겨 다니며 독립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김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김구는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려 27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신탁통치에 반대한 김구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 통일을 위해 삼팔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남과 북이 갈라진 채 남쪽에만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님은 한 발의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큰 별 하나가 그렇게 지고 말았습니다.



1. ㄱ과 바꿔 쓸 수 있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 ① 피해 ② 타결 ③ 단결 ④ 운동 ⑤ 은혜

2. 다음 중 바르게 쓴 낱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삼팔선을 넘어갔습니다.
② 그때부터 각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③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졌습니다.
④ 내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 보았습니다.
⑤ 위험을 무릎쓰고 독립 운동을 했습니다.

3.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은 언제인가요?

년 월 일

4. ㉠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선생님

읽기

백범 김구

🌱 〈백범 김구〉의 내용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김구 선생님은 어릴 적 이름과 어른이 되어서 불리던 이름이 달랐습니다. 바뀐 이름을 차례대로 적어 보세요.

--	--	--

 →

--	--	--

 → 김구

2. 김구 선생님이 쓴 자서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

--	--

3.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4. 다음 문장을 시간의 순서에 맞게 번호를 써 보세요.

- ① 17세에 동학에 들어갔습니다.
② 김구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③ 동학에 들어가 이름을 창수로 바꾸었습니다.
④ 1949년 6월 26일, 나라의 큰 별 하나가 지고 말았습니다.
⑤ 1919년 3월, 백범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⑥ 1926년 국무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⑦ 창암은 어렸을 때 고집도 세었고 소문난 개구장이었습니다.
⑧ 일본이 항복하자 27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 () → () → () → () → () → () → ()